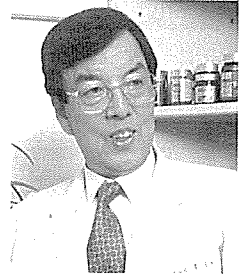


바이러스성 피부질환



국 홍 일
(피부과 전문의)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세균이나 원충(原蟲)은 많지만 바이러스도 빠질 수 없는 건강의 천적이며 아직 완전정복을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인 후천성면역결핍 증은 인류의 멸망을 예고하는듯 광범위하게 퍼져가도 속수무책이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가장 흔하게 앓는 감기나 헤르페스도 감염되면 일정 기간 동안 앓아야 하고 예방백신도 없는 실정이다.

바이러스는 일반 세균과는 달리 세포 내에서만 번식하는 초미니 세균으로 DNA나 RNA 중의 하나를 갖고 있고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광학현미경으로 관찰될 정도로 작다. 일단 감염되면 인터페론이라는 방어물질이 생성되어 바이러스가 더이상 전파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피부감염은 보통 수포(물집)와 염증으로 나타나고 미용을 해치는 사마귀도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라면 놀랄 사람이 많다. 바이러스성 피부질환은 헤르페스, 심상성우체라는 학명을 가진 사마귀, 전염성 연속종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헤르페스는 또 단순포진과 대상포진으로 나뉘는데 어릴

때 '입이 커지려고' 또는 심술이 많아 '술났다'고 표현되는 코 주위나 입술이 부르트고 물집이 생겨 헝고 아픈 증상이 바로 단순포진이다.

이 질환은 처음 물집이 생겨 가렵다가 터져 아프지만 특별히 약을 쓰지 않아도 1주일 정도면 상처없이 저절로 낫는다. 심한 경우 진통제나 소염제를 써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으나 대개 큰 고통없이 앓고 넘어간다.

그러나 신경줄기를 따라 대상(帶狀)으로 퍼져나가는 대상성포진(Herpes Zoster)에 감염되면 치유기간이 길어지며 대단히 아프고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으나 보통 제2 경추신경과 제2 요추신경을 따라 잘 발병하고 신경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

명확한 피부병변이 나타나기 1~2주 전에 병이 발생할 피부가 근질근질하다가 발병되면 오한, 근육통 등의 전신증상이 동반된다. 더욱 나쁜 것은 완전히 나은 뒤 상처가 보기싫게 남는 것이며 시신경 주변을 침범하는 경우 각막의 수포형성과 궤양에 의해 실명할 수도 있다.

80년대 미국 인구의 5분의 1에 감염되어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던 이 질환은 '바이러스가 비록 인간을 죽일 수는

없을지라도 인간도 바이러스를 전멸시킬 수 없다'는 명구(名句)를 남기도 했다.

바이러스는 인체 어느 부위에든 사마귀도 발생시켜 미용을 해치고 손발톱에 생긴 것은 살 속으로 파고들어 아주 아프다. 발바닥에 나타나면 발을 절룩거릴 정도로 심하게 아프고 흔히 티눈이라 불리는 과각화증과 구별하기 힘들다.

이 질환은 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잘 발생하는데 사춘기 이후 미용을 생각하는 나이에는 정신적인 콤플렉스에 빠지게 된다. 사마귀를 생기게 하는 원인은 파포바라고 하는 바이러스다.

일단 사마귀가 생기면 그 경과를 예측할 수가 없고 성장에 따라 자연소실되는 경우가 많으나 단순치료법에 의해 자주 재발하기도 한다. 한두개 정도면 몰라도 수십개가 나면 치료도 어려운데 주로 전기로 지지거나 냉동요법으로 얼려 떼내는 방법을 쓴다.

그외 어린이에게 다발하는 전염성 연속종도 바이러스가 괴롭히는 피부질환이다. 혀, 구강점막 등에 특징적으로 나타나 가렵고 성접촉에 의한 종물(腫物)은 음모주변에 나타나 환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핀셋이나 큐렛을 이용, 일일이 떼어주는데 화농되면 항생제를 쓰기도 한다. 57